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가을

2012년 31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2012년 제31호 가을호



시론 3. 2012년 연말은 선거의 계절입니다 | 서국진(13회) 동문회장

인터뷰 4.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약대의 초석을 다져야 | 서동철(23회) 학장

동문회소식 6. 한마음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 | 전금용(28회)

지부별소식 9. 양천구분회 | 신영무(28회) 분회장

동기회 소식 10. 동기들의 뜨거운 우정과 함께한 미국 여행기 | 배동운(7회) 동문

1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78학번(26회)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 김학철(26회) 동기회장

18. 졸업 50주년 기념여행을 마치고 | 임철부(6회) 동기회장

별난동문이야기 22. 자유가 나를 화평케 하리라! | 양재업(23회)

약국도움이야기 26. 11월 14일이 무슨날인지 아십니까? |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문학산책 29. 不如來飲酒(불여래음주); 나와 함께 술 마시러 오는 것이 좋지
| 허인회(4회) 명예교수

약사회장 선거 30. 입후보자
당선자

만평 37. 패기의 중앙인... 아름다움을 만든다 |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장학기금 38. 발전기금을 대신해서 장학기금으로 새출발합시다!
39. 2012회계년도 회비내역

장학금 40.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명단

편집후기 41. 편집후기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12년 11월 23일

발행 : 2012년 11월 25일

발행인 : 서국진 | 편집인 : 김기명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565-1700 팩스 : 564-1701

인터넷 : <http://www.caupharm.or.kr>

E-mail : capa21@hananet.net

기획·인쇄 : (주)YSP

전화 : (031)955-0150(대) 팩스 : (031)955-0159



2012년 연말은 선거의 계절입니다.

개설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정권에 의해 실시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시민 단체들의 심약의약품구입 불편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약사 법이 개정되었고, 11월 15일엔 “의약품수퍼판매”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태가 이미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약사 모두의 책임입니다.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전문매체들과 정보의 홍수는 의약품정보의 비대칭성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도전과 현상들은 약사들에게 제3의 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한약분쟁, 의약분업, 약대 6년제 실시 및 대학 증설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발생했을 경우 지도자의 능력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제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중요성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한약사회의 “변화와 쇄신”을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진 “조찬휘 후보(15회)”는 동문회 역사상 대약의 단일후보로서 중대동문들의 희망이자 당선 의 당위성은 6만 약사들의 소망이 아닐까 감히 반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 외 전국 각지역 약사회 활동을 통해 많은 업적을 남긴 동문출신 후보자들도 꼭 당선 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동문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약국의 현실에서도 묵묵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동문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희망이 샘솟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서국진(13회)동문회장

2012년 연말은 선거의 계절입니다.

12월 19일엔 대통령선거가 있고 12월 13일엔 대한약사회장이 결정됩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중요성은 그 역사적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약사들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약사회는 60여년 동안 많은 부침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님들의 희생정신과 노력으로 약권신장과 약사직능을 최근까지 잘 지켜왔고, 그래서 약사로서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이 출발부터 삐걱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약사직능의 훼손이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왜곡된 의약분업은 의약품 분류의 실패, 대체제 및 성분명 처방을 대신한다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유명무실 등은 불용제고 의약품을 양산하여 약국의 경영위기를 초래하였고, 주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횡행하는 리베이트 문제는 대한민국 의약품산업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약품 통제권은 대부분 약사들의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부의 선진유통산업의 미명하에 일반인약국 개설의 도전은 우리의 미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배타적 약국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약대의 초석을 다져야



약대 신임 서동철 학장

재단은 지난 9월 1일자로 제 21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으로 모교 출신의 서동철 교수(23회)를 임명했다. 동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약학관 준공이 마무리되고, 이제 명실 공히 글로벌 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약대학으로 도약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새롭게 조타수의 임무를 맡게 된 신임학장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먼저 제 21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략하게 취임 소감을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랜 미국생활에서 모교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중책을 맡게 되어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좋은 환경의 약학관에서 마음껏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되었고, 학교 전체적으로도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려는 새로운 전략수립 시기와 맞물려 이전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비상한 각오로 외국 약학대학에서 교수 및 연구소 소장으로서 다진 교육과 경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약대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시대적인 소명감으로 첫 출발의 변을 삼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약대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각오와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당연히 교육과 연구가 두 축이 되어야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약대 6년제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수업연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학제 개편과 커리큘럼의 보완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저로서는 교육분야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약대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여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약대 교육의 내용과 질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크게 보아 다른 나라의 경우도 약대 졸업 후 약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나치게 개국가로 쏠리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약학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위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전적인 약국에만 안주하지 않고 병원약국이나 제약산업 혹은 공직의 다양한 분야로 문호를 넓혀주는 교육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큰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국식 혹은 유럽식이 아니라 한국의 보건건강 체계에서 환자중심의 진료에서 약사로서의 직능 확대와 다른 보건의료인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또한 산업체나 다른 분야에서 약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와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교수님들의 연구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바야흐로 글로벌의 기치아래 퓨전의 시대요 융합의 시대입니다. 약대 6년제 시대를 맞아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약사국시 과목의 전면적인 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 새로운 학문 영역이며 제도며 가치를 배우고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수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효과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연구여건을 조성하고, 당연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께는 학교가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저희 학교는 정부의 대형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앞으로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연구역량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시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대 교수님들께 각 분야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교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최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의 외부 수혈로 현재의 약학대학 위상을 이만큼 지켜 오신 현직 교수님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역시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교육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모든 노력의 결과가 현실적인 혜택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대폭 확충한다든지 교환학생 등 교류의 기회, 시야를 넓힐 기회를 넓혀 세상에 약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일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사회봉사에 눈을 놓칠이나 무의촌 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더해 학교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제도화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도 우리 약대 학생들이 할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봉사활동이 체질화된 미국 약대에서의 경험을 살려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중앙대 약대의 완성을 위해 더 하실 말씀은?

많지는 않지만 졸업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문들을 뵈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걱정은 우리


중앙대 약대가 이전의 명성에만 갇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아니 직설적으로 말해 옛 이름을 까먹고 있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글로벌한 시각과 기준에 두고 새출발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분야와 연구분야의 기본적인 복안은 물론 졸업하신 동문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학교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문들을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하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학교와 교수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잊혀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학금이든 발전기금이든 아니면 기회 닿을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 또는 후배 재학생들에게 대한 관심으로 기여를 하신 동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 조성에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문화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그간의 사회경험을 온전히 녹여낼 각오입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역량도 교육능력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약대 학장의 보임을 맡겨준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학교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동문들과의 전향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약학대학 보직교수



한상범
약학대학 약학부
제약학 전공주임교수

-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약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약학과 박사



이재휘
대학원 약학과 주임교수

- 중앙대학교 약학과 약학사
- 중앙대학교 약제학 약학석사
- University of Wales 약제학 약학박사



제42회 모교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

- 28회 동기회 동문 체육대회 참관기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모교라는 단어는! 정작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50을 넘은 우리들에겐 학교와 관련된 행사란 항상 고향 같은 그리움이며 안식처다. 포근함이고 편안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중대부속중학교 운동장으로 향한다. 이른 시간인데도 연세 지긋하신 선배님들부터 친구와 후배들, 그리고 재학생들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눈다. 높고 푸른 하늘,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무엇보다 좋았다.



전금용(28회)

고향같은 그리움이며 안식처인 모교

사회자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푸느라 개회식은 한참 지난 시간에야 어쩔사리 시작이 되었다.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에 더해 격려사까지 평소라면 제법 지루했을 절차들을 기꺼이 웃음으로 받아들인다. 어차피 오늘은 우리들의 날, 즐기는 사람들의 잔치이니까. 아니다 다를까? 경기 시작하자 점잖던 어른들이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어린아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우리 80학번(28회)은 본부석 왼쪽의 등나무밑 햇빛이 적은 시원한 곳에 동기회에서 특별 제작한 플랭카드를 보란듯이 내세우며 자리 잡았다. 올해도 예감이 나쁘지 않다. 작년보다 날씨가 더 좋았다.

상품에 눈이 멀기로 작정하자!

경기시작, 이제부터 양보란 없다. 푸짐한 상품에 눈이 멀기로 작정하고 모두들 이리저리 열심히도 뛰어 다녔다. 남자쪽 구는 아쉽게도 나사모팀에게 패했다. 여자 동기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원규의 몸에 비해 날렵한 몸놀림에 해룡이의 30대 몸짱 몸매로 볼을 막아내던 다이내믹한 모습과 날쌔게 헤딩, 게다가 상오의 짧은 다리 헛발질에 엉겁결에 손이 먼저 나가는 실수 등이 어우러져 종횡무진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패배. 비록 졌지만 열정으로 푹푹 뭉친 우리 멋진 친구들! 끝내 아쉬워하는 마음을 짐짓 나이탓으로 돌리며 못이기는척 발길을 돌렸다.

여자 피케이! 작년 3위의 전력을 바탕으로 전설적인 골키퍼

퍼 영주가 분전을 거듭했으나 벽은 높았다. 우리 자식 포래의 아주 예쁜 재학생들이 귀여운 몸짓으로 볼을 차는 모습은 지나간 20대 시절을 더욱 생각나게 한다. 어쩔 하나하나 저리도 예쁘까! 열정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단결된 모습은 경기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고, 포래 남자친구들의 응원도 힘을 더해 우승은 당연히 재학생들에게 돌아갔고, 조금의 아쉬움 없이 서로 박수 쳐주고 안아주었다. 이렇게 선후배사이의 정은 조금씩 깊어가고 또한 오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자만 잘살면 무슨 재민겨?

게임과 게임 사이에 보고 싶었던 선배님들도 만나고 또 오래 못 본 친구들의 안부도 물으며 잔과 잔을 부딪히며 추억의 장도 만들었다. 동문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음식에 더해 동 기회는 동기회대로, 지역 분회는 분회대로, 거기에 더해 각종 실험반이며 씨클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안주와 술을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며 커지는 웃음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영주가 밤새 준비한 오텍의 깊은 맛이 오늘 우리 모임의 살가움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렇다. 혼자만 잘살면 무슨 재민겨? 같이 어우러져 울고 웃을 때 사람 살아가는 맛을 느끼는게 인생이라고 선배들께 배웠다. 그 말을 이제 우리가 후배들에게 전해 주어야겠다.

등나무 밑의 웃놀이가 응원소리도 가장 크고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다 이겨놓고도 마지막 한판에 뒤집어져 지고 있던 팀이 우승하는 모습은 반전의 스틸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세상살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줄넘기는 연습할 땐 정작 호흡을 잘 맞추다가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다리에 힘을 뺀 탓으로 본 시합에선 힘도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지고 말았다. 작년에도 똑같이 욕심부리다 비슷하게 지지 않았었나? 바둑에 제기차기까지 이기는게 뭘 소린지 모를 정도로 패배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기분은 더 좋아져가니 이 무슨 조화일까? 그래도 해룡이가 참가한 이어달리기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음에도 다시 일어나 불굴의 의지로 승리에 기여했으니 이만하면 손해볼 일은 아난듯하다.

굵은 동아줄만큼이나 도타운 선후배의 정

오늘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홀수 학번과 짝수학번으로 나뉘 마지막 혼을 쏟아부은 줄다리기 일 것이다. 머리 희끗희끗하신 선배에서부터 젊음이 마구마구 넘치는 막내 재학생까지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한 줄다리기는 시합 개시도 전에 서로 신경전 벌이느라 반쯤 낮이 빠질 정도로 시끄러웠다. 평소에 점잖으셨던 선배님들이 앞장 서서 목청껏 응원깃발을 휘두르시는 와중에 노련한 졸업생들과 패기의 재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모두 하나가 되는 기쁨의 장을 연출했다. 백군이 이겼지만, 정작 승자도 패자도 없이 내일 온몸이 부서질 지라도 조금도 몸사리지 않고 정말 온몸을 던져 끌어당긴 기억은 굵은 동아줄만큼이나 오래 이어질 터였다.

오늘에서 내일로, 선배로부터 후배에게로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은 30년 전의 학생때 모습 그대로에 어느듯 30년 세월의 무게가 더해진 중년의 모습이 오버랩 되





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야말로 마음만은 모두 20대의 그것 그대로였다. 적당한 피로감과 만족감이 교차할 무렵 진행되는 행운권 추첨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처럼 설레는 기다림과 실망과 환희의 연속이었다. 몇몇에게는 커다란 기쁨을, 다른 몇몇에게는 아쉬움의 탄성을 안겨주었지만 선물 못받아 배아픈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는게 이 시간의 묘미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모임도 끝이 났다. 한 목소리로 교가를 부르고 진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하며 체육대회를 마무리했다.

오늘 같이 못한 친구들 다음번엔 꼭 볼 수 있기를, 나이 들

어가며 더 그리워지는 건 오래된 친구인 걸!

나이 들어간다는 것, 점점 모두를 이해하게 되는 것,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 오늘이 가면 내일은 오늘이 더 소중해지는 것을 깨닫는 것!

못나온 친구들이! 다음 모임엔 꼭 나와서 추억을 만들고 공유하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이라는 단어는 뜨겁게 벅차오르는 감동의 그것이 되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중앙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득 안고 멋진 추억으로 만들어 더 나이 들어 만났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이 되리라. 동문 여러분, 정말 즐거웠습니다!

골프대회 성적 (10월 9일 골드CC)

골프대회 (동기) 1등 28회 2등 26회 3등 20회
 골프대회 (분회) 1등 고양시 2등 안양시 3등 무기반

개인우승 : 조한군(28회) 76타
 2위 : 박수길(27회) 77타
 3위 : 허영(16회) 79타

챔피언코스 롱 : 신희관(37회), 니어 : 곽나운(27회)
 마스터코스 롱 : 한용문(28회), 니어 : 김미자(29회)

행운상
 챔피언코스 / 강귀임(28회) 111타
 마스터코스 / 최민수(31회) 94타

체육대회 성적 (10월 14일 중대부속중학교운동장)

종합우승 34회 동기회
 준우승 나사모
 3위 병태생리반
 다참가상 28회 동기회
 MVP 박주환(나사모), 백희숙(34회 동기회)

족구	1등 나사모	2등 34회	3등 약제반
여자PK	1등 나사모	2등 병태생리반	3등 28회
웃놀이	1등 안양시	2등 34회	3등 나사모
바둑	1등 인천	2등 나사모	3등 서초구
제기차기	1등 34회A	2등 34회B	3등 26회
테니스	1등 전상훈, 김상각	2등 김용수, 조현욱	3등 정의차, 차돈규

양천구 분회



신영무(28회) 분회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양천구 분회는 과거 강서구와 양천구가 분리되기 전에는 강서구 분회로 같이 활동을 하다가 92년도에 강서구에서 분리되면서 양천구 분회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 분회장으로는 8회 김성덕 동문께서 맡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문회 발전의 초석을 다지셨고, 2대 지부장은 13회 윤해선 동문이 맡아 다양한 활동으로 본격적인 활성화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급변한 환경하에 약국들이 각자 도생으로 뿔뿔이 흩어져 다소 침체기가 있었으나, 2005년 24회 하영길 동문이 분회장을 맡으면서 다시 의욕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23회 김재한 동문에 이어 28회 조형진

동문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현재에는 제가 분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임이 활성화되어 현재 분기에 1회씩 빠짐없이 동문모임을 개최하는데, 총 25명의 회원중 15명 정도씩은 참석을 하여 동문으로서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국진 동문회장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동문회 모임은 꼭 참석하셔서 후배들에게 동문회의 저간 사정과 대학의 발전 상황 등 전반적인 흐름을 이야기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배가 높으신 12회 홍근수 선배님, 18회 이복숙 선배님, 21회 김동연 선배님들은 다른일 다 제쳐놓고 틀림없이 참석하셔서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으니 이 보다 더 고마운일이 없습니다. 분회장인 저의 바람은 이런 좋은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다른 어떤 분회보다도 활성화되고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분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토대로 모교 발전과 동문회 활성화에도 작은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기들의 뜨거운 우정과 함께 한

미국 여행기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큰딸 내외의 간곡한 초청으로 모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준비를 한다. 부부만 하는 여행이라 은근히 스트레스다. 가이드가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왕 나서는 길, 즐거움이 앞서야 한다고 마음 먹는다.

배동운(7회)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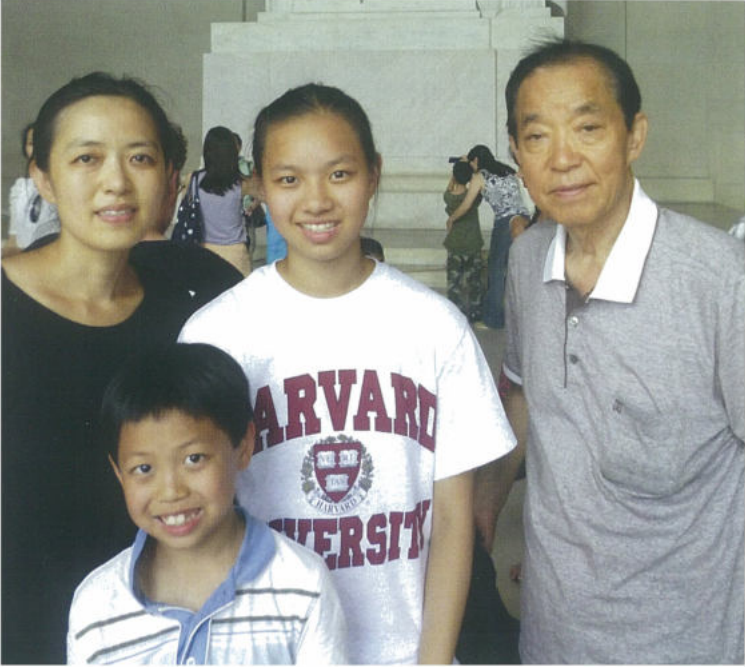
제깃 놈들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우선 간단히 사용할 우스개 단어 몇 개부터 챙겨본다. '돈=머니', '달걀사고 내는 돈=에그머니', '몰래 훔친 돈=슬그머니', '장인=롱맨', '장모=롱마더', '일리가 있다=윈투헤브예스', '애들이 좋아하는 돈=할머니', '아버씨가 좋아하는 돈=아주머니', '백악관=화이트하우스', '투명한집=비닐하우스' 등등.

손자, 손녀에게 줄 선물 챙기기, 밀반찬거리 마련에다 들이 먹을 치료약과 상비약만 해도 한 보따리니 옷가지 준비할 때부터 마누라의 잔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어쨌거나 암선고받은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라니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기로 마음먹자.

우선 시애틀 직항인 국적항공 KAL을 타니 크게 불편할 일 없는 와중에 상냥하고 친절하 승무원들의 서비스 속에 14시간 동안의 비행이 끝나고 공항에서 딸네 식구들과 반갑게 해후했다. 번잡스런 서울에서 날아온 터라 조용한 거리, 깨끗하고 잘 가꾸어진 정원, 담장 없는 집집의 꽃나무 등은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세련된 도심 건물을 순례하는 것을 필두로 야외의 공기도 췌어 보고, 수산시장 스타벅스 1호점에서의 커피 한잔으로 피로를 풀기도 했으며, 한국에서는 거의 타볼 수 없는 카누 즐기는 색다른 재미를 불러 일으켰고, 6월인데도 눈 덮인 '레이너국립공원'의 절경은 두고두고 감탄할 만 했다.

마침 시애틀 주변에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김화천 동



기를 만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았고, 박노의 부부와의 밀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가며 식사를 하게 되어 여행의 또 다른 기쁨을 맛보았다. 특히 박노의 동기는 여행마니아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수시로 관광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 부러웠다.

라스베가스의 LG전자쇼에서 느낀 자부심

계획한대로 우선 4박 5일간의 서부여행부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 후버댐 등등 여러 곳을 둘러보았는데, 방문지 각각의 감흥이 다 색다르고 좋았지만 내 짧은 필설로 형용하기 쉽지 않아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모두 대단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한 가지만 특기하자면 라스베가스 구시가지 상가지역에 있는 약 200m 길이의 상가에서 밤 10시에 전등을 모두 끄고 화려한 전자쇼를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LG전자가 진행하는 것이었다.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LA에 사는 7회 동기인 김정훈(한의사), 한영희, 이복순



(학교이사장), 최운선 등 4명의 동기들이 준비해준 저녁자리에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초창기 힘들었던 지난날들의 고생담에 가슴이 아프다가 끝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성공을 이끌어낸 무용담에 가슴 한켠이 알싸해지는 느낌을 맛보았다. 동창들끼리 한 달에 한 두 번씩 골프도 치면서 우의를 다질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 신이 나서 서울 친구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다.

가능한 2013년 5월에 있을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쉬운 작별을 했다.

30년 시한부 아버씨의 탄생

며칠 뒤에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옐로우스톤, 그랜드티론 솔트레이크, 구리공단, 유향온천, 소금온천 등을 관광했다. 참 매력적인 곳으로 지인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여행지라고 생각되었다. 관광버스 가이드의 안내로 한사람씩 자기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딸 초청으로 왔다고 했고, 사돈끼리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 부러움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세태의 반영이랄까 아들 초청으로 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특이하게도 미국 온 지 30~40년 만에 처음 여행을 나섰다는 사람도 있어 만만치 않은 이국생활의 어려움을 어렵듯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내 순서가 되자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의사로부터 시한부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왔다"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겨우 30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했더니 모두가 놀라운 표정을 짓다가 일순 안도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다. '30년 시한부 아저씨' 라는 별명을 덤으로 얻고는 기분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즐거웠던 시애틀에서의 추억을 뒤로 하고 뉴욕으로 이동했다. 뉴욕에서는 중풍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이기황 동기의 초청으로 그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역시 동기인 김중



락(병원근무)과 함께 식사도 하고 바닷가를 거닐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죽을 만큼 갖가지 고생도 했던 이기황은 결국 사업으로 성공은 했지만, 다시 병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했는데, 그래도 타고난 명량한 성격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에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귀국 이후에도 가끔 안부전화 겸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바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픈 친구도 성공한 친구도 우리는 동기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말톤에는 이준중 동기가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지역유지로 살고 있는바 골프연습장도 경영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족 모두를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 친구는 학창시절 공부보다는 운동에 더 취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력 끝에 아들 두 녀석이 모두 하버드대를 나오는 등 꽤 성공적으로 키운 것 같아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세계 최고', '세계 제일'이라는 뉴욕에서는 주로 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하며 관광을 했다. 새로운 상징 건물을 신축 중인 9·11 테러현장(그라운드 제로)을 위시하여 엠파이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유엔본부, 월스트리트, 소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센트럴파크를 둘러보고 뮤지컬 쇼를 관람했으며, 당연히 코리아타운을 둘러보는 즐거움도 만끽했다.

그런 연후에 보스톤과 필라델피아를 방문하여 독립기념관이며 박물관, 그리고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도 견학을 했다.



대학들이 상상 이상으로 크고 방대한 교정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여정으로 들린 워싱턴에서는 김동수 동기와 점심을 같이 한 후에 집을 방문하여 부인 정영희(8회)와도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담소를 나눴다. 부인은 지금까지 20여년동안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지역유지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 반가웠다. 주로 택시와 트롤리버스를 이용하여 백악관, 링컨기념관, 루즈벨트기념관, 국회의사당, 조폐공사, 2차대전기념탑, 한국참전기념탑 등등을 두루 둘러볼 수 있었다.

6~7월 즈음이라 날씨는 무더웠지만 습도가 적고 바람이 있어 그렇게 더운지는 모르고 지냈음은 작은 행운이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초기단계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은 고생도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 확실한건 우리 동기들은 영원한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도 친한 친구사이에 세월의 골은 문제될 게 없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건강을 챙겨라

1000억원이 있는 어느 재벌이 말하기를 “1자 뒤의 첫 번째 0은 돈이요, 두 번째 0은 명예요, 세 번째 0은 권력인데, 1자를 잃으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잃는다”고 했다. 바로 그 ‘1’은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

리 모두는 건강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챙겨야 한다.

여러분! 이 나이까지 살아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① 죽는다, ② 혼자 간다, ③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여행은 삶 자체를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미국은 거대하다. 풍족하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질서 속에 자유가 느껴지기도 한다. 볼거리가 정말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마지막 조크! 여행 중에 깨달은 것 한 가지, 한식과 양식의 차이는 한식은 한손으로 먹는 것이고 양식은 두손으로 먹는 것이란다.

2013년 5월 7일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자

45일간의 긴 일정에서 보고 느낀 바가 적지 않으나 모두 가슴 속에 잘 갈무리해 두고 틈틈이 추억을 되새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미국에서 만났던 많은 동기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13년 5월 7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 꼭 참석하길 부탁하며, 다시 한 번 베풀어준 후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정의 창을 닫는다.

경
축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78학번(26회)졸업 30주년 기념
 •일시 : 2012. 10. 13 •장소 : 서울 여성 플라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78학번 (26회) 졸업 30주년 기념

사랑하는 중약 78 동기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편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78학번(26회)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김학철(26회)동기회장

아침 저녁으로 제법 스산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 오후입니다. 고즈넉한 고택 돌담에 길게 드리운 가을 햇살이 이제 막 담벼락 중간쯤 걸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햇발을 부지런히 거둬 벗님들께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중약 78 벗님들! 그동안 모두들 안녕하시지요? 우리들의 잔치인 졸업 30주년 기념식 행사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마치고 그 고마운 마음 다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마음은 원이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던 벗님들과 멀리서 오가신 벗님들을 일일이 다 챙겨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이 또한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제 마음 한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회비를 내주고 특별회비를 내주신 벗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처음에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기념식을 치러야 우리들의 기쁜 잔치가 될 수 있을지? 연초에 흑석동에서 중약 78동기회 전·현직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개략적인 얘기들과 함께 전직 회장단들로부터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일단 장소를 잡았습니다.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기에 한 두루빛님과 황완균 친구의 수고로 1차 방문을 하고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행사 장소는 우선 교통을 고려하여 전철에서 가까워야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벗님들의 잠자리가 행사장과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친구는 번듯하게 호텔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 보기에도 번듯하고 맛있는 장소에서 행사를 하자는 친구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그보다는 우리들의 축제가 될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벗님들이 소중한 모아준 특별연회비를 낭비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벗님들의 참여로 한마음이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던 기간 중 사랑하는 벗님, 권희재 친구가 급작스러운 병마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

운 비보에 대관령을 넘어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도 허망하고 가슴이 아파 “권희재! 회비도 안 내고 갔어.~”하시며 눈시울을 붉혔던 김유선 재무님 말씀에 슬픔이 더했습니다.

“회비 안 내도 좋으니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장례식장에 모인 친구들의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만들어야 하겠기에 한 두루빛님과 의논하여 중약78동기회의 연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우리들 곁을 지났지만 추억만큼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사진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벗님들의 도움으로 카페에 공지를 올려 지나간 추억의 사진들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고 인터넷으로 보내주신 벗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입학 및 졸업 20주년 행사 때의 사진을 보내주셨던 조병일, 진희억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벗님들의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약대동문회 사무실의 박은희 실장님의 수고로 그 일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교에 재직 중인 황완균 친구의 덕분에 은사님들의 주소도 확보되었습니다.



개략적인 행사일정이 정해지고 1차로 초청장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봉투에 일일이 주소를 적어 나갔습니다. 인쇄된 주소는 어쩐지 싫었습니다. 첫 멘트를 무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립고 그리운 동창들이여! 세월은 뱃전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어느새 우리를 앞서더니 금빛 노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로 시작하였습니다. 졸업 후 30년의 세월은 적어도 그러했기에 말입니다.

윤용혁 친구에게 축시(“중약 78 명산들이여!”)를 부탁하고 이재권 친구와 조인구 친구에게 트럼펫 및 클라리넷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세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감동적인 축시와 친구들을 위해 연주해 주었던 두 친구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행사를 위한 예산 짜기와 역할분담과 준비물과 몇 번에 걸친 행사장 현장 확인도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약 78 동기 여러분! 이제 당일 참석하여 빛나는 꽃으로 방명록에 서명하신 54명의 벗님들과 당일 전화와

문자로 아쉬움을 표했던 벗님들과 축하의 메시지를 함께 하며 축하화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벗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벗님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우리들을 빛나게 하셨던 존경하는 은사님들과 약대동문회 서국진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장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월의 숲한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 온 우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은 더욱 향기롭고 맑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해져도 우정은 결코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의 우정이 각자 한 그루의 튼튼한 나무로 자라 초록빛 몸짓과 목청으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숲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중약 78 동기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꿈속에서도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랜 친구

해 향 김 학철

오래된 은행나무처럼
황금빛 가을 들녘처럼
싱그런 아침 햇살처럼
다가오는 그대

바람에 팔랑이다가도 이내 노란 이파리 눈부시고
비바람 꺾이다가도 이내 알알이 들어차 풍성하고
강 안개 스멀거리다가도 이내 새로운 하루에 축복을
들이붓는 그대

사람들은 알까

그대 다가오면 나도 노란 은행나무 되고
그대 다가오면 나도 황금빛 가을 들녘으로 물들고
그대 다가오면 나도 싱그런 아침 햇살로 반짝인다는 것을

사람들은 정녕 알까

떠올리기만 해도
입 안 가득 퍼지는
이 향기로운 말

그대
내 오랜 친구

-2012. 10. 13 중약78동기회 졸업30주년 기념식에 부쳐-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을 마치고!

임철부(6회) 동기회장

찌늘한 아침 기온을 피부로 느끼며 잠실운동장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는 롯데관광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의 반가운 인사가 한참이다. 8시 30분, 참으로 뜻깊은 약대 졸업 50주년 기념 2박3일 코스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약대 졸업 50주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대학 졸업 50주년은 유달리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오다가 50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앞으로의 생활을 설계해 보기도 하며, 한편으론 그동안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에서 과거 대학시절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며 잠시나마 순진했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졸업 50주년 기념여행에는 멀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기인 김영수, 임덕순과 함께 이완재 부부가 바쁜 중에도 함께 참석하여 줌으로써 그 의미를 배가하여 주었다. 그

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안타까웠던 일은 이번 여행에 함께 참석하려고 계획했던 서병세 동기 가족이 뉴욕에 붙어 닥친 허리케인 때문에 비행기를 탈수 없어 같이 출발하지 못한 사건이다. 그나마 서울에 돌아온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만추의 향취와 함께 마곡사로 출발!

시멘트 숲속의 도심을 벗어나 오곡이 무르익은 들판으로 빠져 나오니 좌우로 단풍에 물든 드넓은 산야가 품에 안기며 만추의 향취가 가슴속 깊이 스며든다.

모처럼 시간을 틈내 대학시절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여행 길에 오르다보니 그간 쌓였던 추억과 더불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담에 빠져 있는 동안 어느새 처음 목적지인 공주 마곡사에 도착하였다. 버스에서 내려 계곡을 따라 산길을 오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마곡사에 도착한다.

사찰 주변을 둘러싼 산들을 온통 채워 붉게 물들인 단풍은 가히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마곡사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일 뿐 아니라 충남지역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절이기도 하다. 마곡사란 이름은 큰 스님들의 설법을 들으려 몰려든 사람들이 마치 삼밭의 삼(麻)이 일어선 것처럼 골짜기(谷)를 가득 메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 사찰은 백범 김구선생이 시해당한 명성왕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1896년 일본군 장교 '쓰치다'를 살해한 후 사형언도를 받고 복역 중 1898년 탈옥하여 숨어든 후 이곳에 은둔하며 나라걱정을 하였던 곳이라기에 마음이 한층 더 숙연해진다.

세계 최대의 위용을 자랑하는 새만금방조제

순례를 마친 후 바로 군산으로 향하여 군산횃집에 도착하였다. 군산이 고향인 Y 동기가 우리 일행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싱싱한 회정식으로 미각을 충족시킨 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잠시 후 '새만금 방조제'에 도착하니 엄청난 규모의 위용이 눈에 들어온다.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평야의 '만'과 김제평야의 '금', 그리고 새롭다의 '새'에서 '새만금'이란 이름이 만들어졌으며,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만경평야와 김제평야 같은 옥토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한다.

잘 정비된 방조제를 둘러본 후 곧장 순천을 향해 출발하였다. 순천식당에 도착한 후 일정 관계로 부득이 여행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번 여행에 각별한 성원을 아끼지 않은 J 동문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저녁성찬을 나누며 오늘의 여행에 관해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숙박지인 여수의 베네치아 호텔로 옮겨 여장을 풀었다.





붉은 단풍의 오동도와 여수 세계해양박람회

이튿날 아침 식사 후 오동도 관광에 나섰다. 이 섬은 멀리서 보면 섬의 모양이 오동잎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옛날에는 오동나무가 유난히 많아 오동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잘 정돈되어진 산책로를 따라 파란 바닷물과 어울려진 붉은 단풍 숲속을 걷노라니 상쾌함이 참으로 더할 나위 없다

오동도를 돌아본 후 바로 옆에 위치한 여수 아쿠아리움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초 해양 세계박람회의 위상에 걸맞게 다른 아쿠아리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시물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국내 최대 규모인 6,505t 수조에 300종, 34,000마리 이상의 해양생물들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특히 흰돌고래, 바이칼 물범, 해룡 등 세계적인 희귀종들도 만나 볼 수 있었다.

아쿠아리움 관광을 마친 후 곧바로 남도식당으로 옮겨 A 동문이 특별히 정성들여 마련한 성찬으로 점심식사를 나누며 여

행 이틀째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었다.

동양의 나폴리 통영과 한려수도에 취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다 여수를 떠나 다음 관광지인 통영을 향해 출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에 도착하였다. 한려수도 조망용의 이 케이블카는 그 길이가 1,975m로 국내 관광용 케이블카 중 제일 길다고 하는데, 탑승객에게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갖게 해주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의 정상에 올라 조망대에서 내려다본 전체 한려수도의 풍광은 새파란 바닷물과 어울려 가히 동양의 나폴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환상적인 풍경 그대로였다. 이런 풍광에 도취되는 한편으로는 한려수도를 바라보며 임진왜란 때 침공한 일본군을 쫓은 해협으로 유인하여 전멸시킨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한산도대첩을 자연스럽게 상기하게 되어 그 분의 나라사랑의 위대함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영시와 한려수도 전체의 풍경을 한눈아래 관광한 다음 1931-1932년에 만들어진 동양 최초의 바다밑 터널로 알려진 통영 해저터널을 돌아보고, 이어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굴정식으로 바쁜 일정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숙소인 거제 오션베스트 호텔이 이동하여 여장을 푼 다음 부산 동문들에 의해 마련된 거제도의 노래방 여흥은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마음깊이 간직될 것이다.

기암괴석의 해금강, 한국의 파라다이스 외도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 일행은 유람선에 승선하





여 외도를 향해 출항하였다. 가는 도중 주변의 풍경은 새파란 바닷물과 어울려져 이루어진 아름다움에 저절로 감탄사가 튀어나오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특히 해금강의 경관은 바다의 금강산이란 이름에 걸맞게 기암괴석의 파노라마와 더불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금할 길이 없게 한다.

목적하는 외도에 도착하여 외도 보타니아의 관광을 시작하였다. 외도는 거제도에서 4km 쯤 떨어진 섬으로 설립자인 이창호씨 부부에 의해 1995년 4월 25일 외도 해상농원이란 명칭으로 개원하였으며, 그 후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지며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외도는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도 1만여평에 식물원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도는 아직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섬 전체가 천연 동백숲을 이루고 있으며, 선인장, 코코스야자수, 가자니아, 유칼리, 용설란 등 3천여종의 수목들이 자라고 있어 그 풍치가 한국의 파라디이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다. 마치 지중해의 한 해변도시를 그대로 옮겨 온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외도 관광을 모두 마친 다음 거제도도 귀향하였는데, 이곳에서 여행에 동참한 여자 동문들이 정성으로 마련해준 성찬으로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고의 만찬을 즐기며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울로의 귀향길에 올랐다.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여행뿐 아니라 6회 동기회를 위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계속해준 한미약품의 L 회장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로 드리며, 이번 여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후원을 아끼지 않은 H 동기와 P 동기를 비롯한 여러 동기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히 여행에 동참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 식사까지 성대히 마련해준 여자 동문들에게 더없이 고마움을 느낀다.

나이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멀리 미국에서 이번 여행에 참여하여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의 의의를 배가해 주신 재미동문 여러분께, 그리고 이번 여행 중에 시종일관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여행에 참여한 동기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가 나를 화평케 하리라!

- 태국 켈노이 지역 몽족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 양재업(23회)

66세, 자유를 찾는 여정의 출발

2012년 현재 내 나이 66세, 자유의 삶에로!

동기생들보다 거의 10여년 많은 나이로 입학한 중앙대 약대를 마치고 약사로서의 생활을 통해 고집스럽게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만만치 않은 여정을 거친 나에게도, 오랜 꿈을 향해 출발하는 첫 해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기쁨의 설렘과 아쉬움과 비장함과 쓸쓸함과 고독감과 두려움과 흥분함과 중압감과 가다 쓰러질 것을 이미 알면서도 꿈꾸는 소망등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가다갈 수 없는 묘한 심경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소에는 함께 해서도, 할 수도 없는 감정들이 뒤얽혀 시

작된 연초였다. 그간 30년이 넘도록 경영해온 약국을 말없이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의 각오와 앞으로의 생활을 알렸을 때, 6명의 가족 중에 한 명만 빼놓고 모두들 “아니 왜? 아니 벌써....?”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누구보다 자유스럽게 살아왔으며, 누가 뭐라던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새삼스레 앞으로 10년을 또 자유롭게 살겠노라는 소망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선언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유이리라. 게다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경제활동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나의 성향에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한 가족들에게서조차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터.

남들은 안정을 찾을 40대에 새삼 어학의 기초부터 배워가며 중국으로 6년의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고, 지금껏 나름의 취미생활도 남달리 많이 하며 살아왔는데 자유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하는 반문들이다.

어찌 보면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능력도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자유의 삶을 찾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작정했다니 노망이 아니면 객기임에 틀림이 없다고 비난해도 할 말은 없었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꿈을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

꿈 많던 청년시절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어떤 한 직업을 갖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65세부터는 그때까지 얻어진 달란트로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고 생을 마감해야지!”

내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이 좋은 꿈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작 그런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음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달자면 누구나 댈 수 있는 이유가 나라고 없을 리는 없겠으나, 나는 다행히도 의외로 많은 준비를 꾸준히 해왔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마음에도 늘 잊지 않을 정도로 기억해 왔고, 용기도 그대로 있었고, 특히 3년 전에 새롭게 시작한 신앙생활도 자유에 대한 꿈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 주었다.

나만의 달란트로 도움이 되는 이웃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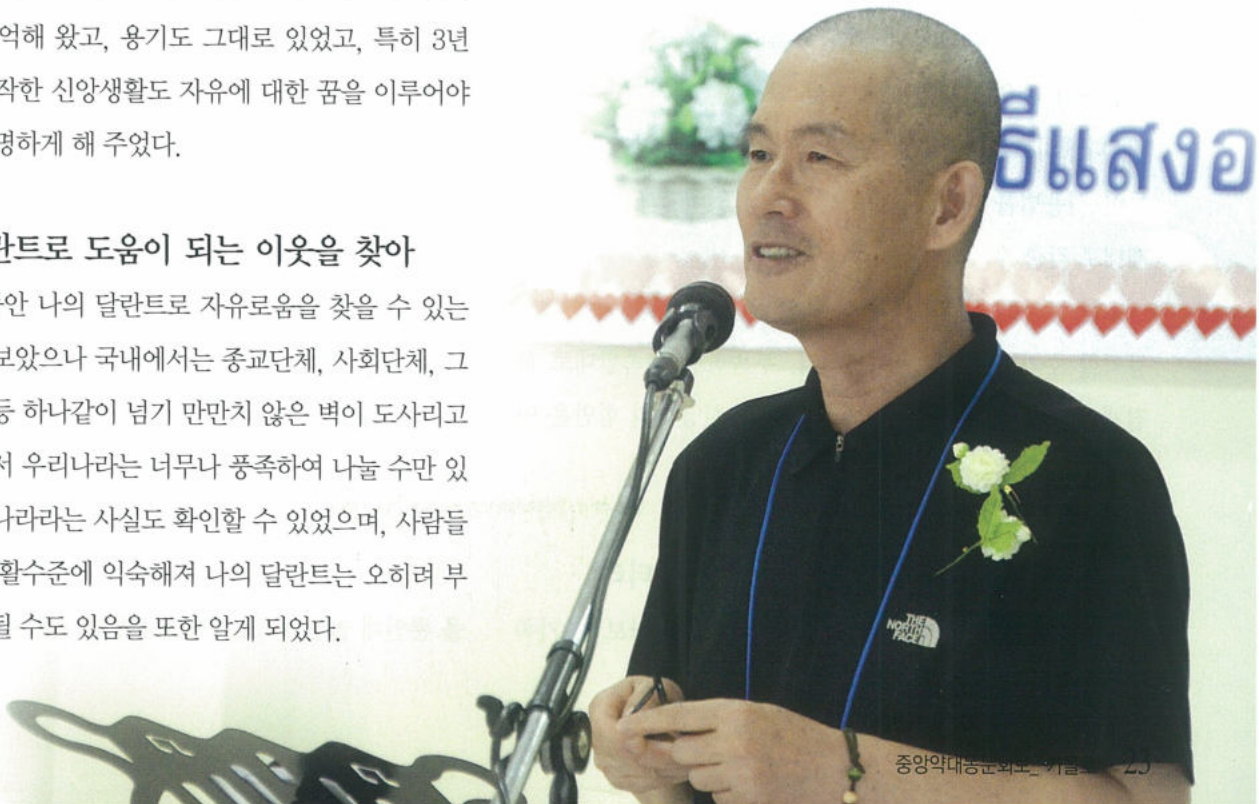
지난 일 년 동안 나의 달란트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수소문해 보았으나 국내에서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정서 등 하나같이 넘기 만만치 않은 벽이 도사리고 있었고, 현재로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풍족하여 나눌 수만 있다면 넘쳐나는 나라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도 이미 높은 생활수준에 익숙해져 나의 달란트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옛날 내가 꿈꾸던 시절의 상황은 이미 아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로 자유로움 속에 내어 놓은 나의 달란트가 참되게 필요한 이웃이 외국에는 있지 않을까 찾아보기로 했다.

국가협력단체, 종교단체들을 확인해 보니 하나같이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뜻이 선하다면 반드시 때가 오리라 믿고, 봉사의 과정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하였다.

드디어 금년 6월 어느 날, 선한 뜻은 하늘이 알아보고 돕는다는 거창한 말을 하고 싶은 인연이 나에게 이어졌다. 20년 전에 38세의 젊은 부부교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도전을 받고, 태국 중북쪽 1,100m 산악지역에 국적도 없이 화전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몽족을 알게 되어 그 중에서도 장애자를 돌보는 일에 지금까지 헌신해 오고 있다는 귀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갈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시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내게 전해져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심정으로 감사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랜 지기처럼 의기투합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지기의 소중한 경험을 새기며 내 조그만 달란트를 보태기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은 했으나, 그 짧은 시간에도 마음과 달리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로 우여곡절을 몇 번이나 겪었지만, 드디어 8월 10일에 예정





된 종교단체 장애자 교사 봉사팀 11명이 출국하는데 협조를 구해 어렵사리 합류하여 총 12명이 10일간을 동행하게 되었다. 예정된 수술대로 2일간은 다른 지역 장애자 학교를 방문하여 봉사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의료봉사가 필요한 켄노이 산악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20여년 전 유학시절에도 침으로 봉사를 경험하며 훗날을 예비하여 준비해 두었던 침과 부족하긴 했지만 그간 몇몇 지인들의 마음이 담긴 노력으로 약품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다행히도 이전에 방문했던 의료진들이 남기고 간 약품들이 사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그나마 구색을 제대로 갖추 수가 있었다.

또한 봉사팀에 간호사 출신이 한 분 있어서 큰 힘이 되어 동역할 수가 있었다. 궁즉통이라,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분명 나의 부족한 신앙심의 힘만은 아니었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니 치료의 길이 보이더라

몽족은 험한 산악지역에서 화전으로 살아가다보니, 가족

중심에다 절대적으로 남자 중심이고 특히 일부다처제의 풍습이 고착되어 있었다. 거주 환경이 문 없이 구획된 땅바닥 방에서 살아가는 형편이니, 특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하는 여자들의 마음은 대부분 화병이 들어 있었고 모든 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전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성질환의 대부분이 마음의 문제가 큰 원인이지만, 그들의 모진 삶의 배경을 듣고 진료의 방향을 환자의 증상치료보다는 원인이 된 마음을 알아주고, 위안하고, 종교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권고하는 진료상담과 투약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혀가게 되었다.

평소에 상담과 진료투약도 변변히 받아보지 못하고, 전래의 풍습이기에 말 못하고 억울했던 마음을 상담을 통하여 알아주고 위안하는 것 자체로 그들은 눈물과 함께 치료가 시작되었고, 진심이 통한 상태에서의 투약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비타민 몇 알로 웃음을 되찾으니

기억나는 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여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3년째 아프고 호흡부터 배변까지 오장육부의 어느 기능도 원활한 곳이 없다는 호소를 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런 증상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남편이 새 여자를 들인 후부터였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병이 마음이 편치 않아 생겼음을 설명하고 눈물만 흘리는 환자를 진실된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종교의 사랑과 용서와 소망의 마음만이 온전한 회복임을 설명했으며, 비타민 B와 C의 작용을 알려주고 투약했다. 덧붙여 백회와 신경혈에 침도 놓아 주었다.

3년을 고통 속에 견디어 온 환자에게 진통제나 신경안정제를 사용하여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의 위안과 종교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스스로 근본을 극복하는 것을 체험케 하는 것이 그 환자를 온전히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거듭 확신했다.

비타민 몇 알을 진실되고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투약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3일째에 본인이 편함을 느낄 정도로 모



든 증세가 사라졌다며 행복한 표정으로 나타나는 작은 기적을 연출하여 본인은 물론 함께 봉사한 현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열악한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비타민만 30일 더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주로 많이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느낄 새도 없었으며, 이런저런 잔잔한 에피소드를 통해 그야말로 내가 봉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내가 배움을 받았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가 겸양의 말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은혜롭게 경험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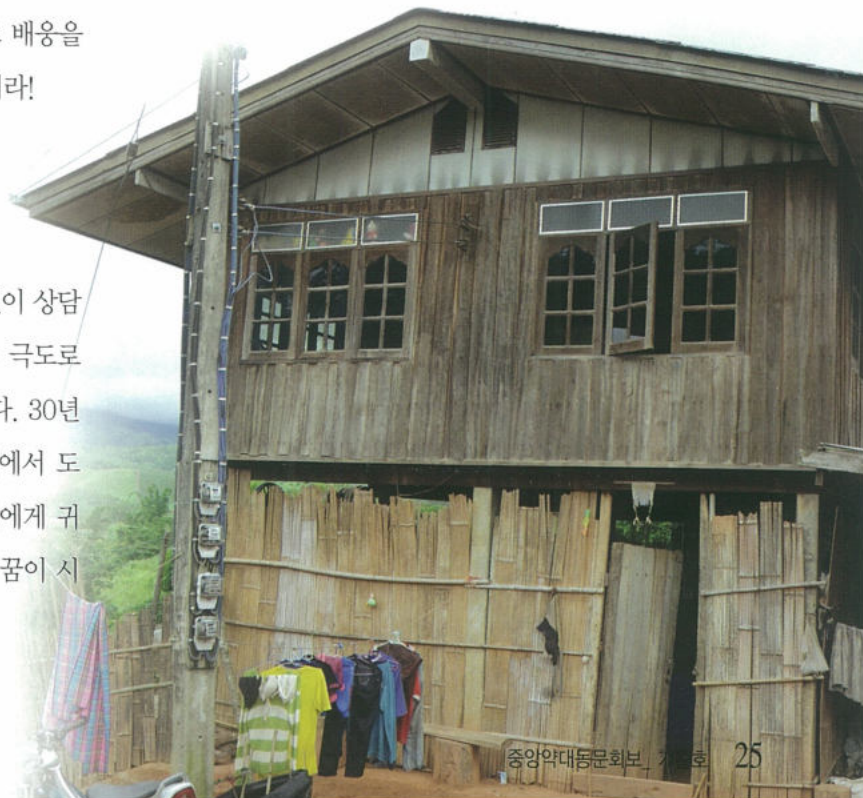
5일간의 짧은 봉사가 끝나고 떠나는 날, 진료를 받았던 주민들이 다시 꼭 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밝은 얼굴로 배웅을 나왔다. 그들의 가난하지만 선한 얼굴을 잊지 않으리라!

자유의 이름은 또 다른 구속, 그러나 마다하지 않으리

그 기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쉴 틈 없이 상담하고 투약을 하느라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은 극도로 지쳤으나 온통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순간들이었다. 30년을 넘도록 환자 상담만을 해온 나의 달란트가 주위에서 도와준 몇 가지 약품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병든 그들에게 귀한 나눔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꾸어온 자유의 꿈이 시작되었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자유는 또 다른 구속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봄에, 내가 주위를 바라봄에, 주위가 나를 바라봄에, 그리고 다 같이 하늘을 우리러 봄에 변함없이 귀하고 아름답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자 하는 자유의 여생이라 말하고 싶다. 그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었고, 확신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나누며 살아갈 길을 찾았다.

끝으로 나의 오랜 꿈이었던 자유의 삶을 시작하는데 마음을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특히 어렵사리 정성으로 약을 지원해준 6명의 지인들에게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1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당뇨병 대란

최근 들어 영양과잉, 운동 부족에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전 인구의 0.5% 미만이던 당뇨병 유병률은 지금은 8~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가히 당뇨병 대란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10초마다 한 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하며, 30초마다 한 명이 당뇨합병증으로 하지를 절단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안심할 처지는 못된다. 주지하다시피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연료인 '포도당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생겨 그 포도당이 아깝게 소변으로 버려지는 병(糖尿病)'이다.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insulin)은 포도당을 혈액 중에서 신체조직으로 유입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이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제1형), 상대적 부족 혹은 작용약화로 유발되는 것(제2형)이 바로 당뇨병이다. 임상적으로는 혈당치가 공복시 126mg/dl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치가 200mg/dl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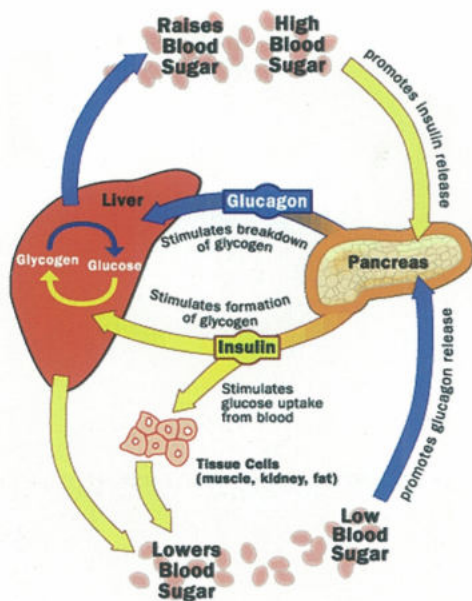


그림 1. 당뇨병의 생리

경구용 혈당강하제 vs. 인슐린 주사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관리는 정기적인 혈당 측정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에 더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약물요법을 적용함으로써 고혈당을 조절함과 동시에 만성적인 합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체내에서 인슐린이 일부 생산되고는 있지만 식이요법만으로 혈당치가 완전하게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경구용 혈당강하제(OAD)를, 그리고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규칙적으로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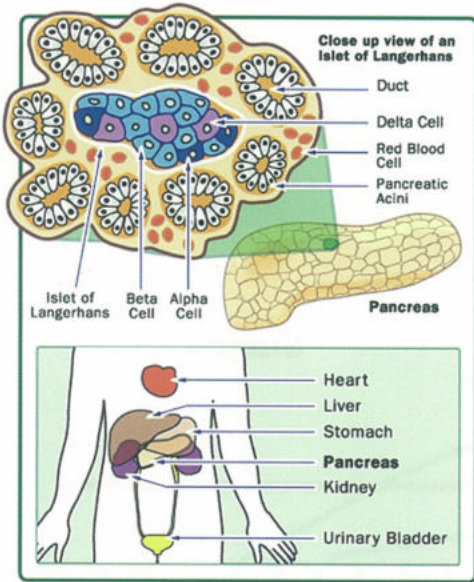


그림 2.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

1921년 Banting에 의해 인슐린 분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인슐린은 1921년 캐나다 외과의사인 Banting에 의해 개의 췌장에서 추출되었다. 인슐린 개발과 관련된 그 이전의 중요한 의학적 성과를 살펴보면, 1889년 독일 의사인 Joseph von Mering과 Oskar Minkowski가 췌장을 제거한 개에게서 당뇨병의 모든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났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다는 것을 관찰하여 당뇨병에서 췌장의 역할을 밝혀낸 것이다. 이후 1910년 영국의 생리학자 Sir Edward Albert Sharpey-Schafer가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췌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단일의 화학물질이 부족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했는데, 이 물질을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랑게르한스 "섬" (1869년 독일 병리학자 Paul Langerhans가 기



그림 3. Banting과 Best

술)과 관련시켜 섬(island)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insula*로부터 파생된 *insulin*이라는 용어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1921년 Sir Frederick Grant Banting은 토론토대학 생리학 교수인 J.J. Rickard MacLeod의 연구실 일부를 제공받아 MacLeod가 할당해준 미국출신 캐나다인 의학도 Charles Herbert Best의 보조 하에 8주간의 연구를 진행했다(Best는 다른 후보 학생과 동전던지기에서 이겨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그들은 von Mering과 Minkowski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인위적으로 당뇨병을 유발시킨 개에게 건강한 개의 랑게르한스섬에서 추출한 물질을 주입함으로써 상태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로써 비로소 체내 대사에서 췌장의 내분비적인 역할이며 인슐린의 존재를 확실히 밝혀낼 수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인슐린 개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Banting, Best와 그 동료들(특히 생화학자 Collip)은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소의 췌장에서부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정제해 내는 작업을 계속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법인 인슐린 주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22년 마침내 최초의 환자 Leonard Thompson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 인슐린 주사 최초의 환자 치료 전과 치료 후 모습

다양한 종류의 인슐린

인슐린 주사는 제1형 당뇨병 환자를 기본적인 투여대상으로 하며, 그에 더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경구제 투여하기 전의 고혈당 조절 목적으로, 혹은 제2형 환자 중 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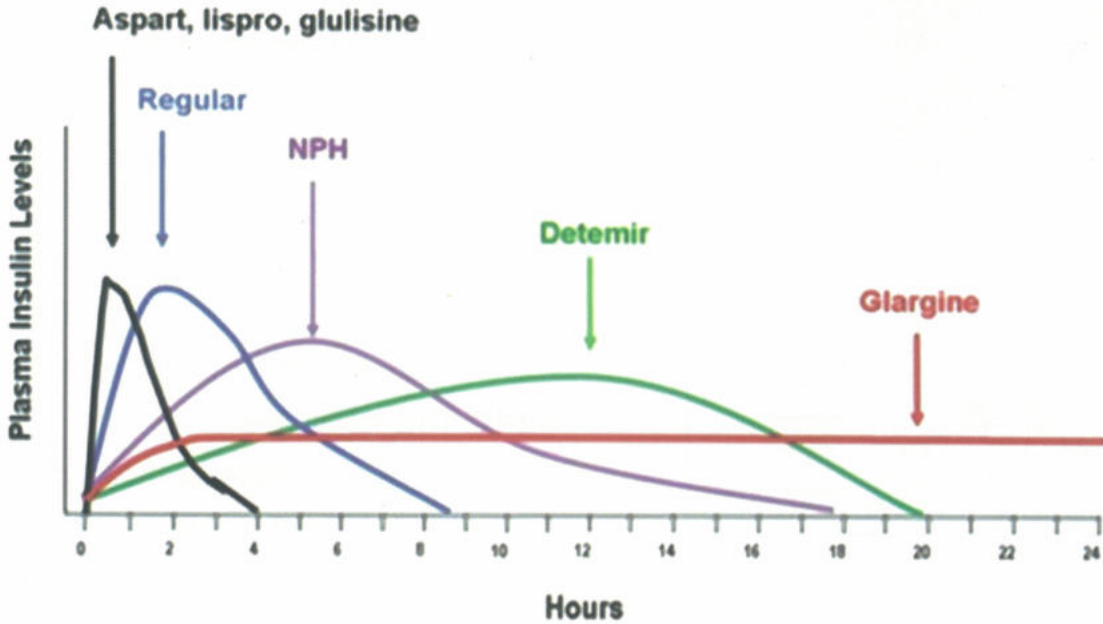


그림 5. 인슐린의 종류

제로 실패한 경우, 그리고 임신, 수술, 심한 질병, 급성 간염, 간경변, 신장기능 이상 등 다른 치료가 일시적으로 부적당할 때 단기간 적용하기도 한다.

종류도 초속효형, 속효형, 중간형에 지속형까지 작용시간과 강도가 다른 다양한 제형들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11월 14일 = 세계 당뇨병의 날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당시 32세였던 Banting과 실험실 책임자인 MacLeod는 19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그



world diabetes day
14 November

그림 6. 세계 당뇨병의 날 로고

이후의 전개과정이 흥미롭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상금을 수상에 동참하지 못한 동료들, 특히 Best와 Collip과 기꺼이 나누어 가졌다.

더 나아가 Banting과 Best는 인슐린에 관한 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어떠한 상업적인 생산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 위대한 결정에 힘입어 인슐린의 생산 및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세상은 그의 업적을 기려 Banting의 생일인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로 헌정했다.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白居易의 작품



허인회 (4회) 명예교수

不如來飲酒(불여래음주);
나와 함께 술 마시러 오는 것이 좋지

莫隱深山去(막은심산거) 심산에 은거하러 가지 말게
君應到自嫌(군응도자혐) 그대는 응당 몸소 싫어 할 걸세
齒傷朝水冷(치상조수랭) 새벽 물이 차서 이가 아플 것이고
貌苦夜霜嚴(모고야상엄) 밤 서리가 혹독해서 얼굴이 괴로울 걸세
漁去風生浦(어거풍생포) 고기잡이 가면 물가에서 바람 불어오고
樵歸雪滿巖(초귀설만암) 땔감 나무해 돌아오면 눈이 바위 위에 꼭 찰걸
不如來飲酒(불여래음주) 나와 함께 술 마시러 오는 것이 좋지
相對醉厭厭(상대취염염) 서로 마주해서 거나하게 취해보세

Better Come Drink Wine with Me

Don't go hide in the deep mountains-
you'll only come to hate it.
your teeth will ache with the chill of dawn water,
your face smart from the bite of the night frost.
Go off fishing and winds will blow up from the cove;
return from gathering firewood to find snow all over the cliffs.
Better come drink wine with me,
face to face get mellowly, mellowly drunk.

한자의 뜻 貌: 얼굴. 厭厭: 족한 모양. 거나하게 취한 모양 (mellowly).

해설 830년에 지은 시이다. 勸酒十四首 가운데 앞은 何處難忘酒 이고 후는 不如來飲酒 七首이다. 이 것 중 첫 번째로 首로 은거하는 것보다 와서 상대하며 술이나 마셔 거나하게 취하자고 권하고 있다.



강력한 약사회
활기찬 약국
존경받는 약사

11월 15일은
약사의 자존심이 짓밟힌 치욕과 울분의 날!
눈치만 보는 회무 스타일로는 약권 침해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

기호

2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

조찬휘

개혁의 기수! 준비된 회장! 약사회의 희망!

조찬회와 함께하는 개혁 프로젝트!!!

강력한 약사회로 확~ 바꾸겠습니다

약국경영 활성화로 활기찬 약국을 만들겠습니다.

약사 지위 향상으로 존경받는 약사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0년을 속고도 **또** 맡기시겠습니까? **사람을 바꿔야** 약사회도 바뀝니다!

조찬회 개혁 프로젝트 플러스

- 작고 강한 집행부를 만들겠습니다.
- 임원 검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겠습니다.
- 회원과의 소통, 화합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전문가운터, 면대약국에 대한 상시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 광고품목만이라도 제값 받기 운동 전개하겠습니다.
- 상담용 전자차트 개발로 일반의약품 매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처방전 리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일반약 판매기법 고객응대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약사회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U-Healthcare시대에 대비한 약사직능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 스위치OTC 도입으로 일반의약품을 확대하겠습니다.
- 약사직능 개발을 위해 타 단체 및 선진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GPP 도입으로 선진화 된 약국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조찬회 후보 약력

- 서울시약사회 총회 의장
- 서울시약사회장
- 대한약사회 부회장
- 대한약사회 이사
- 약학정보원 이사
-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
-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회의 회장
- 서울 성북구약사회장
- 수보온누리약국
- 한독약품 성북구 영업소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자랑스러운 약사
신나는 약국



기호

1

조석현

우리는자랑스런약사입니다.

P.R.I.D.E

Professional(전문성) - 약의 전문가는 약사다.

- 1) 다양한 의약품 정보 제공 사업으로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
 - 다양한 지역 언론매체에 의약정보 기고 활성화
 - 팟캐스트, 페이스북 등 스마트 폰을 이용한 정보제공
 - 의약품안전교육강사활동 계승 발전
 -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업 확대로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인식 확대
- 2) 자율정화운동
 - 약사 전문성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자율지도 강화
 - 상시적 사업으로 선정하여 분기별 실적 보고
 - 약사 위상 저해 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리 매뉴얼 작성 추진
- 3) Get the Answer 운동 홍보
 - 복약지도 및 환자 질문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 인식 시키기
 - Get the Answer운동이란? 환자의 최소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다섯가지 질문 : 약의 이름과 성분, 효능효과, 복용법 복용량, 부작용, 복용시 음식물관계)

Resistance

- 1) 사후약방이 아닌 선제적 약권 수호 사업추진
 - 평상시에 분회와 협력하여 각 지역 의원실의 정책보좌관과 복지포럼 결성하여 지역 복지정책과 관련한 통계자료생성 및 정책제안과 향후 지역 복지정책의 자문 기관으로서 자리 확립
- 2) 회원들과 회무에 대한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
 - 약사회 게시판 외에 소셜 네트워크 개설
- 3) 대관업무를 정보화하고 공유함으로써 미래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 4) 상시적인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실태 조사 및 향후 근거자료확보

Initiative - 효율적인 회무 운영

- 1) 위원회별 운영자금 선 지원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 보장
 - 운영자금의 독립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영수증으로 사용내역 대체
- 2) 청년약사들의 회무참여 독려를 위한 테스크포스팀 결성
- 3) 인력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약국 근무인력 효율적인 지원
- 4) 낱알 반품사업의 지속적 시행
- 5) 회원 고충 처리는 핫라인 구축 운영 24시간이내 답변
- 6) 소수 분회의 부족한 운영자금 일부 지원

Duty

- 1) 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전담기구 신설(가칭 : 약사 재능 기부 봉사단)
 - 봉사단장 책임하에 자율적 사업개발 및 활동 적극 지원
 - 의약품 안전교육 강사 대폭 확대
- 2) 시민 단체 및 지역 약학 대학과 연계하여 사회 참여 사업 개발 및 사안별 MOU 추진
- 3) 여약사회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Education

- 1)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의 접목을 위한 연수교육 온, 오프라인 교육 강화
 - 6년제에 대비하여 대학과 연계한 동영상 강의 적극 실시
 - 상시 연수 교육 체제 운영
 - 약국 경영 마인드 고취를 위한 강좌 적극 유치
- 2) 지역 학교약사제도의 현실화를 대비한 교육 실시

조석현 후보 약력

- 現인천광역시 약사회 총회 부의장
- 現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인천 동문회 회장
- 現천주교 서울대교구 목5동성당 사목위원회 실버분과장(호스피스회,연령회 담당)
- 인천광역시 약사회 부회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약사회 제2대, 제3대 회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약사회 부회장
- 인천광역시 북구(부평/계양구) 약사회 총무
- 인천 이조약국 개업~현재
- (주)종근당 총무부 총무과 근무(대관업무담당)
- 육군 보병 제11사단 13연대 복무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안전상비약 무력화 후 회수!
단속위주의 약사감시 폐지!
약사자율지도 정착!
약국경영현대화사업 강력 추진!

투쟁을 넘어

기회를 준비하는 약사회

기
호

2

더불어 큰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 원 일

지난 3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뛰겠습니다

이원일이 약속드리는 미래

- 안전상비약 무력화 후 회수
- 약사 자율지도 시범사업 정착
- 약국경영 현대화 사업 강력 추진
- 불용재고 반품사업 정례화
- 제약회사 · 도매상의 불공정 거래신고센터 운영으로 회원권익 보호
- 약국종사자교육 약사회가 대행
- 토요일 당번도매제 추진
- 파견약사 상근제 도입
- 약국업무길라잡이 업데이트 발행
- 약화사고, 법률적피해 등 법률지원
- 다양한 학술강의 개설 및 분회강의 지원
- 연수교육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분회장의 임원추천제 확대 시행
- 경남약사한마음축제 개최

이원일의 지난 3년

- 수퍼판매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해 경남약사회가 투쟁의 선봉에 서다
- 약사자율지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시범사업을 약속받아내다.
약국단속 실적이 정부기관 평가항목에 포함됨을 경남약사회가 밝혀내고 대한약사회와 협력하여 개선함.
- 국립경상대학교 식의약품 대학원 유치(2011년)
- 병원약사님들을 교수요원으로 확보 등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
- 정책기획단을 창단하여 근무약사인력풀제의 연구 및 시범사업 실시
- 약국업무 길라잡이 2000부 제작배포
- 근무약사 · 병원약사 간담회를 지역별로 수시로 개최
-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51명 양성
- 분회장의 임원추천제를 도입 실시
- PharmExpo 부울경 공동개최
- 경남팜FC축구단 창단 및 활동



이원일 후보 약력

- 1973 창원중앙초등학교 졸업(5회)
- 1976 창원중학교 졸업(26회)
- 1979 마산고등학교 졸업(38회)
- 1979 중앙대학교 약학과 입학(27회)
- 1981 육군입대(병장제대)
- 1987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9 마산YMCA 이사(현)
- 2004 경상남도약사회 총무위원장
- 2005 진주, 마산, 창원지역에서 무료한방강의(매년)
- 2007 제주 국제아이언맨대회 완주(16시간 28분)
(SWIM 3.8km, BIKE 180.2km, RUN 42.195km)
- 마산철인클럽 회장
- 마산시약사회장
- 한국약사고방연구회 부회장(현)
- 장수당약국 대표약사(현)
- 2009 전국무료한방강좌(대한약사회) 강사(현)
- 부산지방식약청 마약류 명예지도원(현)
- 부산지방식약청 의약품 명예지도원(현)
-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현)
- 201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장(현)
- 경상남도약사회장(현)
- 한국법무보호 경남지부 운영위원(현)
- 2012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현)

| 수상내역 |

- 회원을 대신하여 받았기에 기재하지 않음.

당선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제35대 충청남도약사회장
당선자
전 일 수
(2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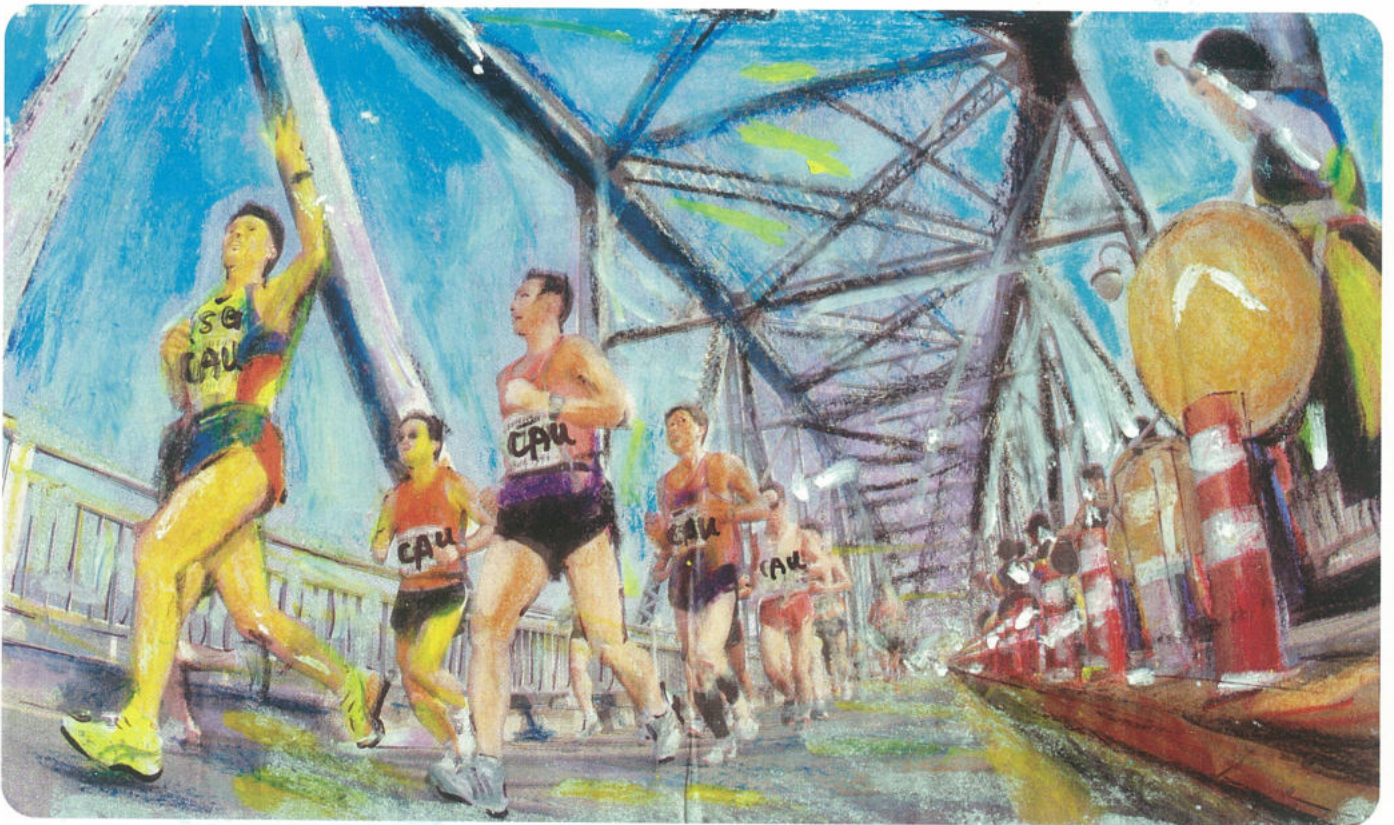
제30대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
함 삼 균
(24회)

패거리의 중앙인...

아름다움을 만든다



김기명 (18회)
편집위원장



발전기금을 대신해서 장학기금으로 새출발합시다!

모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쾌척하신 자랑스런 동문님들.

성명	장학기금
서국진(13회) 동문회장	10,000,000
손동헌(1회) 동문	30,000,000
홍흥만(1회) 동문	1,000,000
김명섭(5회) 동문	100,000,000
용영일(7회) 동문	5,000,000
김윤국(14회) 동문	5,000,000
장재인(17회) 동문	5,000,000
김현태(20회) 동문	3,000,000
이극선(20회) 동문	3,000,000
임경원(20회) 동문	7,200,000
정찬현(20회) 동문	3,000,000
이내흥(25회) 동문	3,000,000
이동규(25회) 동문	5,000,000
김영후(26회) 동문	6,000,000
성정희(26회) 동문	360,000
한갑현(26회) 동문	6,000,000
김정호(27회) 동문	6,000,000
민병희(27회) 동문	600,000
박영달(27회) 동문	3,000,000
최충식(27회) 동문	3,000,000
양덕숙(28회) 동문	5,000,000
이영주(28회) 동문	6,000,000
장원규(28회) 동문	3,000,000
곽필신(30회) 동문	3,000,000
김정민(41회) 동문	3,000,000
정원희(53회) 동문	2,000,000

우리은행 1005-501-928784 중앙약대장학재단

2012회계년도 회비내역(2012.5.26~2012.11.15)

■ 회장단 회비(600,000원)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13	서국진	17	김성지	20	김홍진	24	함한성	27	박영달	30	도민숙
13	문재빈	17	신상직	20	김현대	24	함삼균	27	곽나운	30	김상의
13	박동규	17	장재인	21	김수배	24	황규진	27	오홍설	30	백영주
13	안병식	18	김기명	21	김중효	25	최두주	27	이원일	32	정선종
13	이종각	18	전광우	21	홍종오	25	김광호	28	이병천	32	조양연
13	이상길	18	정명진	22	유대식	25	이내홍	28	양덕숙	33	조준상
15	박석동	19	이경옥	22	강희운	25	김희섭	28	이상수	34	김보원
15	임영식	19	김경오	22	최광훈	26	한갑현	28	이해룡	49	김원호
15	이상용	19	옥태석	22	전일수	26	최민규	28	이영주		
15	박원봉	19	이창욱	23	정덕기	26	오옥희	29	한일룡		
16	조기현	20	이상일	23	하충렬	26	김정수	29	현상배		
16	김광식	20	정찬현	24	이규삼	27	김정호	30	김광식		

■ 이사회비(150,000원)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6	유상열	9	김학원	10	변도문	14	홍성철	18	강응모	26	김정수
6	임철부	9	김영빈	11	박찬희	14	김중렬	18	김애경	26	김학철
6	유상열	9	윤광로	11	김미자	14	조길도	18	박광숙	26	박재길
6	김동열	9	이규진	12	심재웅	14	양인승	20	송열호	28	유희동
7	유영후	9	이근배	12	이성우	14	조양연	20	이신규	28	신영무
7	박명신	9	권혁구	12	조택상	15	조찬휘	21	한성희	29	김은진
7	서명규	9	문영동	13	구연홍	15	권영선	21	이상준	30	고석일
8	박번일	9	박성학	14	김명웅	16	권영복	23	임준석	30	최병원
8	조의환	10	유정사	14	윤대봉	17	김재천	25	조석현	30	서정봉

■ 일반회비(30,000원)

이성호(6회), 이풍기(6회), 문중찬(6회), 신의명(6회), 조중대(6회), 김태형(6회), 이종호(6회), 정진석(6회), 장지용(6회), 이원걸(6회), 김명기(6회), 유복상(6회), 황선창(6회), 유승균(6회), 유효희(7회), 이상현(7회), 조경신(7회), 이주학(7회), 윤태정(7회), 정재용(8회), 정재영(8회), 이상규(8회), 조수현(8회), 최영자(8회), 임진택(8회), 유재우(8회), 정수광(8회), 권오성(9회), 윤경자(9회), 박종명(9회), 박정자(9회), 신현우(9회), 이병호(9회), 박종환(9회), 민영창(10회), 이장열(10회), 심수일(10회), 이원일(10회), 손영수(11회), 이범진(11회), 이기호(11회), 오성근(11회), 차영진(11회), 양계창(11회), 강봉진(11회), 구자익(11회), 전창환(11회), 김대건(12회), 문혜성(12회), 유건수(12회), 이훈(12회), 오형철(12회), 유용상(13회), 최승기(13회), 김민호(13회), 최창조(13회), 김동원(14회), 이춘재(14회), 이병조(14회), 안태화(14회), 김현숙(14회), 현혜경(14회), 조병화(14회), 이춘재(14회), 최중택(14회), 이용성(14회), 박태호(15회), 박중애(16회), 신규언(16회), 김용환(16회), 김관호(16회), 신승백(17회), 이복숙(18회), 육득윤(18회), 여운숙(18회), 양만기(18회), 김동희(19회), 배영덕(19회), 남윤수(19회), 남덕자(20회), 한광식(20회), 윤준수(20회), 강성무(21회), 노재하(21회), 이훈영(21회), 박성준(22회), 이순영(22회), 김중국(22회), 김태일(22회), 천경호(22회), 최경선(23회), 박성진(23회), 오형록(23회), 나용태(23회), 한병철(23회), 최금순(24회), 김기환(24회), 박용석(24회), 오세홍(24회), 오근택(25회), 이수영(25회), 송태수(25회), 김두수(25회), 신현동(26회), 손영성(26회), 이순아(26회), 변옥혜(27회), 염승호(27회), 장영혜(27회), 전명수(27회), 한성호(28회), 김광선(28회), 박춘화(29회), 안형준(29회), (29회), 한규인(29회), 장우성(29회), 김선경(30회), 김연희(30회), 유영숙(30회), 이광숙(30회), 조민숙(30회), 강승익(30회), 강성희(30회), 오은숙(30회), 이동익(31회), 정세진(32회), 최재욱(32회), 안승희(32회), 주재현(32회), 김광복(32회), 채영주(32회), 전병국(33회), 유정순(33회), 박상권(34회), 정호섭(34회), 김용수(34회), 김중국(34회), 임중식(35회), 양정희(35회), 김진(35회), 오창현(35회), 이태경(36회), 장문정(36회), 한덕희(37회), 이몽준(39회), 방근철(39회), 신순옥(39회), 장정수(40회), 이병두(40회), 이승준(44회), 심미순(45회), 김은수(46회), 강지연(40회)

2012-2학기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명단

번호	장 학 금 명	장 학 금 액	전 공	학 번	성 별	성 명	학 년
1	본동문회	3,000,000	약학	20095698	여	김미나	4
2	본동문회	3,000,000	약학	20095520	여	나은지	4
3	본동문회	3,000,000	약학부	20105570	여	고민혜	3
4	본동문회	3,000,000	제약학	20095863	여	이은정	4
5	본동문회	3,000,000	제약학	20095656	여	권현아	4
6	본동문회	3,000,000	약학	20095158	여	배윤정	4
7	본동문회	3,000,000	약학부	20105873	여	한주희	3
8	여동문회	1,000,000	약학	20095365	여	최서영	4
9	안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20095455	여	김인혜	4
10	부산동문회	500,000	약학	20095640	남	황호영	4
11	나사모동문회	1,500,000	약학	20095147	여	백영지	4
12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20095856	남	김지훈	4
13	약품물리반 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95754	여	배채원	4
계		26,500,000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편집후기

충주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로부터 올해도 어김없이 58번째 생일을 맞는 큰 며느리인 아내에게 축하전
 신환과 십만원을 보내 오셨다. 작년 12월 17일부터 원인모를 갑작스런 심근염으로 응급실로 실려가
 생사기로의 언저리에서 사경을 헤매다 성냥갑 크기만한 페이스메이커를 가슴에 시술하고서야 기적적
 으로 회복되어 돌아온 급박했던 상황을 되돌아 볼 때 올 생일은 아내에게나 어머니에게나 크나큰 의미
 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며느리를 당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뻔했었으니 그 충격이 어떠
 하셨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새벽, 문득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따듯한 체온을 느끼며 울컥 북받쳐 오르는 환희와 감동으
 로 거실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 십자가상을 우러러보며 새로운, 낯날을 영위케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기
 독고인으로 축복의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신 사랑을 찬미하게 된다.
 성모병원의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들, 신앙의 스승이자 동료인 주변의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교
 우님들, 친척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인연을 맺었던 선한 이웃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같
 이 이겨낸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린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세상 사는게 다 그렇지 뭐!”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세상 사는게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중대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15년간 계속 써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썩은 환부를 그냥 덮어 두면 낫지를
 않습니다. 썩은 곳은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한갑현 (26회) 편집위원

AIR MAIL

38년 전통의
의약품 유통 전문 종합도매



풍전약품주식회사

POONGJEON PHARMACY CO.,LTD.

대표이사 회장 임 완 호

Tel. 02)578-2131 Fax. 02)577-6668 E-mail. Poongjun1@hanafos.com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세계 11개국 국제발명 특허품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808**®



808 808
여명 808 ~ ♪
음주전후 숙취해소
마시자 808
숙취해소 808 ♪
정말 좋아요
여명808

벌써 갠겨?



세계 발명강양
남종현

- 제4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 세계10대 발명전 대상 수상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